「광문자전」 연구*

- 본전(本傳)의 서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

안순태**

Ⅰ. 서론
Ⅱ. 본전(本傳)과 서후(書後), '달문'과 '광문'
Ⅲ. 본전(本傳)의 서사적 특징
Ⅳ. 고문사(古文辭)로서의 성취와 『사기』의 영향
Ⅴ. 결론

<국문초록>

연암이 18세 무렵에 지어 하루아침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는 「광문자전」의 뛰어난 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이 글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연암은 수학기에 「광문자전」 본전(本傳)을 짓고, 십여 년 후 「광문자전」에 대한 서후(書後)를 짓는다. 본고에서 주된 관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중 본전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본전의 서사적 완결성과 고문사로서의 뛰어난 점을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본전의 서사는 '서사 단락 간 계기적 서술'과 '서사 단락의 공교로운 배치'를 그 특징으로 한다. 본전 서사는 크게 네 단락으로 되어 있다. 그중 첫째, 둘째, 넷째 단락은 각각 광문이 유명해지기 전, 유명해지게 된 계기, 유명해지고 나서의 일화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순차적 구성으로 인해 획득된 시간성을 부지불식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적 순차성을 띠는 것만으로도 일정하게 높은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었다고 할

* 이 논문은 2019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조교수

www.kci.go.kr

수 있지만 보조 인물들을 통해 서사의 단락과 단락 사이를 계기적으로 긴밀하게 엮고 있어 서사적 완결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 각 단락이 갖추고 있는 '갈등-해소'의 구조가, 서사 진행에 따라 반복됨으로써 이야기의 리듬감이 형성되고 있으며 각 단락에서 작품의 주제인 '신(信)'을 반복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점도 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셋째 단락은 일견 광문에 대한 단순 정보들을 열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추한 용모와 어눌한 언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얽매이지 않는 분방한 성격 등 광문의 다양한 면모를 특징적으로 개괄, 주요 일화들로 드러내지 못한 광문의 캐릭터를 보완하고 있다.

연암 스스로 이 작품을 자신의 출세작으로 여겼는데, 당시 연암이 '고문사'로 이름이 나게 된 것도 이 작품 덕분이었다고 했다. 생동하는 주인공과 보조적 인물들을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어 형상화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 작품이 고문사로 높이 평가받은 이유다. 게다가 연암은 수학기에 특히 『사기』를 애호하였거니와 작품 곳곳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 『사기』의 기법을 활용하되 「광문자전」에 밀착된 서술을 하여 『사기』를 제대로 본받았다고 할 수 있다.

「광문자전」은 본전을 먼저 지은 후 이어서 서후, 『방경각외전』 자서(自序)를 차례로 지었다. 그 과정에서 광문의 모델인 실존 인물 달문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전을 지을 당시 달문은 세상에서 신의 있는 인물로 명성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연암은 본전에서 광문을 신의(信義)를 표상하는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반면 달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이후, 즉 달문의 명성이 지나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입게 된 이후에는 명성을 다투는 이들에 대해 경계하는 의미가 후서와 자서에 담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광문자전」 본전은 후서나 자서를 빌리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한 편의 완성도 높은 역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박지원, 광문(廣文), 광문자전, 달문(達文), 고문사(古文辭), 사기(史記), 직불의(直不疑)

www.kci.go.kr

Ⅰ. 서론

연암 박지원(1737~1805)의 『방경각외전』에는 이른바 '구전(九傳)'이 있었다. 그중 「역학대도전」과 「봉산학자전」은 실전되고 나머지 일곱 편이 전한다. 실전된 두 작품은, 허위의식에 가득 차 권세와 이익을 탐하던 당대 인물에 대한 비판과 풍자 수위가 높아 연암 스스로 없앤 것으로 여겨진다.[1]

구전 가운데 「광문자전」은 「예덕선생전」, 「양반전」과 함께 당대에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2] 거지이자 광대였던 실존 인물 '달문(達文)'을 두고 연암이 수학기에 지은 작품이 바로 「광문자전」이다. 연암은 이 작품을 지을 당시를 회고하며 "나는 당시 문장 짓는 일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 전을 지어서 여러 어른들께 보여 하루아침에 고문사(古文辭)를 잘한다고 큰 칭찬을 받았다."라 하였다.[3] 이 작품으로 연암은 일약 문명(文名)을 얻게 되었으니 「광문자전」은 연암의 출세작인 셈이다.

연암의 한문단편 전반에 대해 다룬 연구들을 제외하더라도 「광문자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광문자전」의 주제나 인물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이가원의 연구[4]로부터 역사 기록을 근거로 광문의 실체에 대해 분석한 연구,[5] 「광문자전」과 「서광문전후(書廣文傳後)」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거나[6] 달문 관련 기록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한 연구,[7] 광대로서의 달문의 캐릭터에 주목한 연구[8]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적지 않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고문사(古文辭)로 이름을 알리게 된 연암의 출세작인 이 작

1) 박종채, 박희병 역,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8, 23면.
2) 위의 책, 같은 면.
3) 朴趾源, 「書廣文傳後」, 『燕巖集』 卷8 別集, "余方力爲文章, 作爲此傳, 傳示諸公長者, 一朝以古文辭, 大見推詡."
4) 이가원, 「廣文者傳 硏究」, 『인문과학』 제7권,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2.
5) 박준원, 「광문자전 분석 - 廣文의 실체와 형상」, 『한국한문학연구』 제8집, 한국한문학회, 1985; 차충환, 「상하 경향을 아우른 휴머니즘과 자유인의 형상, 달문」, 김진영 편, 『조선후기 소수자의 삶과 형상』, 보고사, 2007.
6) 박기석, 「광문자전 연구」, 『국어교육』 제96권, 한국어교육학회, 1998; 정규식, 「<광문자전>의 서사적 내용과 주제 의식」, 『용봉인문논총』 제52권,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2018.
7) 김승호, 「<達文歌>, <廣文者傳>, <達文> 각편의 서사유형적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2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9.
8) 사진실, 「광대 달문 - 광막한 천지에 부는 바람 같은 사내」, 서대석 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1, 휴머니스트, 2008.

www.kci.go.kr

품이 어떤 점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듯하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서사적 완결성의 측면에서 이 작품의 뛰어난 점을 밝히고자 한다.

「광문자전」의 서사적 완결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둘 있다. 하나는 「광문자전」과 「서광문전후」를 하나로 묶어 볼 것인가 별개의 작품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연암은 수학기에 「광문자전」(이하 '본전(本傳)'으로 칭함)을 짓고 십수 년 후 일종의 후일담 형식으로 「서광문전후」(이하 '서후(書後)'로 칭함)를 지었다. 지은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광문을 두고 지은 것이어서 『방경각외전』에는 본전과 서후가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본전과 서후를 묶어 하나의 작품으로 볼 것인가 둘을 별개의 작품으로 볼 것인가는 전체 서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광문자전」의 서사적 특징을 살필 때 중요한 문제다. 다른 하나는 「광문자전」의 주인공 광문을 그대로 역사적 실존 인물 '달문(達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광문'은 연암만 사용한 이름이기도 하거니와 이 작품의 세부 서술에서 사실(史實)과 어긋나는 면모도 확인할 수 있기에 광문을 그대로 실존 인물 달문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본전(本傳)과 서후(書後), '달문'과 '광문'

1. 본전(本傳)과 서후(書後)의 관계

「광문자전」 본전과 서후를 단일 서사로 볼 것인가,[9] 혹은 별개의 서사로 볼 것인가는[10] 이 작품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작품 구조를 다르게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주제까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본전과 서후를 단일 서사로 파악하고자 하는 관점은 『방경각외전』 자서(自

9) 박기석, 앞의 논문; 김영동, 『박지원소설연구』, 태학사, 1988; 정규식, 앞의 논문; 강현모, 「연암의 광문전승에 나타난 서사구조와 지향의식」, 『한국언어문학』 제81집, 한국언어문학회, 2012.

10) 박준원, 앞의 논문; 두창구, 「연암소설 구성고(其一) - <광문자전>과 <열녀함양박씨전>을 중심으로」, 『관대논문집』 제20집 1권, 관동대학교, 1992; 김승호, 앞의 논문.

序)에서 연암이 밝힌 「광문자전」 저술 동기와 서후의 내용이 연결된다는 점, 본전 운심 일화의 배경과 서후 표철주 및 뒷골목 유흥가 회고담 배경이 일치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11] 연암은 「광문자전」의 창작 동기를 『방경각외전』 자서에서 '광문이 실제보다 명성이 지나쳐 형벌을 면치 못하였으니 거짓으로 명성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는바[12] 실제로 연암은 서후에서, 광문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세상에서 광문이 유명해지자 개녕(開寧), 즉 경북 김천의 수다사(水多寺)에 있던 걸아(乞兒)가 광문의 아들이라 자칭하게 된다. 역모를 꾀하던 이태정(李太丁)이라는 자가 대중을 현혹하려 걸아를 포섭하였다가 관에 발각되는데, 달문도 여기에 연루되어 국문을 당하였다. 이태정이 자신의 이름을 '광손(廣孫)'으로 바꾸고 광문의 아우라 사칭하였던 것이다.[13] 결국 주동자 이태정은 주살되고 달문은 정배되었다가 곧 풀려난다. 서후에서 연암은 이 사건을 주요하게 다루어 『방경각외전』 자서와 서후 내용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 서후 후반부, 풍원군 조현명의 집 난간 밑에서 기생 분단이를 기다리며 도깨비처럼 시커멓게 서 있던 광문은 본전 후반부 운심의 집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던 광문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보면 본전과 서후의 등장인물, 배경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시간상으로도 순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편(본전과 서후)을 하나의 서사로 파악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자서에서 연암은 광문을 두고 '명성이 실정보다 과도했다'[聲聞過情]고 하여 일견 광문에 대해 비판하는 듯한 입장에 서 있고 서후에서 광문이 '명성이 실정보다 과도'해서 겪은 고초(이태정 역모 사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보면 과연 자서와 본전, 서후가 완결성 있는 하나의 서사 구조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전과 서후를 단일 서사로 파악하는 관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첫째, 본전과 서후는 지어진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전

11) 박기석, 앞의 논문, 377~378면.

12) 朴趾源, 「自序」, 『放璚閣外傳』, 『燕巖集』 卷8 別集, "廣文窮丐, 聲聞過情. 非好名者, 猶不免刑. 矧復盜竊, 要假以爭."

13) 달문은 이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국문을 당하고 태장 60대를 맞은 후 鏡城으로 유배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중죄인의 공초 기록을 담은 『推案及鞫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차충환, 앞의 글, 131면에 사건의 전모가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은, 서후 초반에 연암이 언급하고 있듯이[14] 연암의 나이 18세경, 즉 1754년경에 지은 것이다. 서후에는 박문수(1691~1756), 조현명(1690~1752)이 이미 죽은 상황에서 광문이 상고당 김광수(金光遂, 1699~1770)와 소식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이 있다. 또 서후에 보이는 역모 사건은 1764년에 있던 것이므로, 서후는 1760년대 후반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15] 이렇게 본전(1754년 전후)과 서후(1760년대 후반)의 창작 시기는 10년 남짓 차이가 난다. 더군다나 「서광문전후」라는 제목도 엄연히 「광문자전」 후속편이 아니라 본전에 대한 '발문(跋文)'임을 표방하고 있다.[16] 둘째, 서후에서 본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암 스스로 본전을 객관화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본전과 서후를 엮어 한 편의 작품으로 구성하려 하였다면 이러한 언급이 없었을 것이다. 이 역시 서후가 본전에 대한 속편이 아닌 발문임을 더욱 명징하게 보여준다. 셋째, 본전이 그 자체로 잘 짜여진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 서후는 완결된 서사 구조 없이 광문의 생애 후반에 얽힌 단편적 사실들을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바 본전에 대한 보완 내지 부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넷째, 『방경각외전』 자서(自序) 내용은 본전과도 부합하고 서후와도 부합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 자서(自序) 내용이다.

> 광문은 궁한 거지로서
> 명성이 실정보다 지나쳤네.
> 이름나기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 오히려 형벌을 면치 못하였지.
> 하물며 이름을 도적질하여
> 가짜로써 명성을 다툰 이겠는가.[17]

박기석 교수가 지적하였듯이[18] 이 자서는 본전과도 관련이 있고 서후와도

14) 朴趾源, 「書廣文傳後」, 『燕巖集』 卷8 別集, "余年十八時, 嘗甚病, 常夜召門下舊傔, 徵問閭閻奇事, 其言大抵廣文事. 余亦幼時, 見其貌極醜. 余方力爲文章, 作爲此傳."
15)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42면.
16) 書後는 발문의 다른 이름이다. 이에 대해서는 陳必祥, 『한문문체론』, 심경호 역, 이회, 1995, 230면 참조.
17) 주석 12) 참조.

www.kci.go.kr

관련이 있다. 광문이 궁한 거지로서 명성이 있었다는 점은 본전과 관련된 언급이고 이후 내용은 서후와 부합하는 것이다. 물론 이 자서의 주지(主旨)는 대체로 서후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후를 짓고 자서를 쓴 것은 본전 창작 이후 10년이 더 지나서다. 자서는 서후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이어서 연암의 광문에 대한 자서에서의 관점이 본전보다 서후에 가까운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따라서 자서 내용만으로 「광문자전」(본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본전과 서후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본전과 서후를 단일 서사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별개의 서사로 보아야 할까. 그동안은 본전과 서후를 단일 서사 혹은 별개의 서사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을 취해 왔다면 필자는 이와는 또 다른 시각에서 「광문자전」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전 자체로 서사적 완결성을 띠는 하나의 작품이며, 서사 외적인 맥락에서 서후나 자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본전의 서사적 완결성 내지 문학적 성취를 밝히는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2. 달문(達文)과 광문(廣文)

「광문자전」의 주인공 광문은 '달문'으로 알려져 있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다. '광문'과 '달문'은 같은 인물인가? 달문에 대한 기록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영조실록』 등의 공식기록물과 여러 편의 개인기록물로 전하고 있다.[19] 그런데 연암의 「광문자전」 본전과 서후, 그것을 편집, 재수록한 『동야휘집』의 기록을 제외하면 모든 기록에서 광문을 '달문(達文)'이라 칭하고 있다. 특히 『추안급국안』이나 『영조실록』 등 공식 기록에 '달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광문의 본명은 '달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연암은 「광문자전」에서 '달문'이라는 본명을 두고 일관되게 '광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연암만이 이렇게 일관되게 '광문'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먼저 광문의 본명은 '달문'이며 그가 '광문'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을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

18) 박기석, 앞의 논문, 377~378면.
19) 달문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차충환, 앞의 논문, 130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www.kci.go.kr

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거니와 연암 자신도 「광문자전」에서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임'[達文又其名也]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연암은 「광문자전」을 짓고 나서 십수 년 후 「서광문전후」를 지을 때에도 여전히 '광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자신의 글에 일관되게 '광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광문'은 실존인물 '달문' 그 자체라기보다는 달문을 모델로 하여 연암이 작품 안에서 재탄생시킨 가공의 인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달문의 동생이라 사칭한 이태정(李太丁)을 두고 연암은 그 이름을 '광손'이라 하였다. 그렇게 칭해야 '광문'과 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록 등 공식 문서에는 모두 이태정을 '달손(達孫)'이라 칭하고 있다. 즉 광문과 광손이라는 이름은 연암의 기록 이외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보면 광문이라는 이름은 연암이 창안한 것이며 그 인물 형상 역시 실존 인물인 달문을 두고 창조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작품이 달문이라는 실존 인물, 그리고 그가 겪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전적으로 전언(傳言)에 기대어 상상력을 동원해 세부 묘사를 하고 있는 점도 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어서 다루겠지만, 광문은 약방 사건을 겪기 전부터 유명했다. 그런데 본전에서는 약방 사건이 있기 전 광문을 무명의 거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점 역시 작품 속 광문을 그대로 달문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III. 본전(本傳)의 서사적 특징

1. 계기적 서술

「광문자전」의 뛰어난 점은 어디에 있는가. 연암의 여느 전(傳)들이 그러하듯 이 작품에서도 인물과 사건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문사로서 이 작품의 뛰어난 점은 다음 장에서 보충하겠거니와 필자는 서사물로서의 이 작품의 뛰어난 점이 '서사 단락의 공교로운 배치'와 '단락 간 긴밀한 연결'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점 역시 고문사로서의 성취와도 무관하지 않다.

연암의 이 작품은 다양한 '달문 전승' 가운데 핵심 에피소드 세 가지, 즉

www.kci.go.kr

거지 패두 에피소드, 약방 에피소드, 운심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서사화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일화의 구체적 서술은 전적으로 연암의 문학적 역량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그중 첫 번째 거지 패두 에피소드는 광문의 걸아(乞兒) 살해 혐의와 관련한 것이다. 종로에서 구걸하던 광문이 거지 패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소굴을 지키다가 거지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거지 패거리가 광문이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곤경에 처한다는 이야기다. 이 단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단락1: 거지 패두 에피소드}
① 광문이 거지의 우두머리가 됨.
② 병든 아이가 죽자 광문이 그를 죽였다는 혐의를 입고 도망함.
③ 도망하여 잠입한 집의 주인에게 붙잡혔다 풀려남.
④ 집주인에게 얻은 거적으로 거지 아이의 시체를 싸 공동묘지에 묻어 줌.
⑤ 사연을 들은 집주인이 광문을 의롭게 여겨 약방 주인에게 추천, 광문이 약방에 고용됨.

광문(달문)이 거지였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거지 패두 시절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이 「광문자전」 본전뿐이다. 광문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뒤에서 살필 약방에서의 돈 분실 사건인데, 홍신유는 「달문가」에서 약방 사건이 있기 전부터 달문이 광대로서 유명했다고 하고 있다. 즉 달문의 일대기를 순차적으로 읊은 홍신유는 약방 에피소드를 언급하기 직전 "산대(山臺)의 좌우부에/장안의 악소년 무리들/그를 모셔다 상석에 앉히고서 귀신이나 모시듯 떠받드네."[20]라 하였으니, 달문이 약방 일을 겪기 전에도 최소한 광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암은 위 첫째 서사 단락에서 마치 광문이 무명의 거지인 듯 서술하고 있다. 이는 연암이 거지 패두 에피소드와 약방 에피소드를 계기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무명의 거지였던 광문이 걸아를 죽였다는 혐의를 입고 도망하였다가 숨어든 집 주인의 추천에 의해 약방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설정한 것이다. 별개

20) 임형택 역, 『이조시대 서사시』 2, 개정판, 창비, 2013, 430면.

www.kci.go.kr

의 두 에피소드(거지 패두 에피소드와 약방 에피소드)를 이와 같이 연암은 계기적,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약방 에피소드는 달문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단락2: 약방 에피소드]
⑥ 약방에서 돈이 사라져 광문이 의심을 받다가 오해가 풀려 약방 부자(富者)가 광문에게 사죄함.
⑦ 약방 부자가 사람들에게 광문을 칭찬, 광문이 서울에서 유명해짐.
⑧ 광문이 빚보증을 서면 담보도 묻지 않고 거금을 내 줄 정도로 광문의 신용이 높아짐.

광문은 약방 사건을 계기로 일약 유명인이 된다. 연암 외에도 홍신유(1724~?), 이옥(1760~1815), 조수삼(1762~1849)도 이 약방 에피소드를 특기하고 있거니와 이 약방 에피소드는 광문(달문)과 관련한 대표적인 에피소드라 할 수 있다. 홍신유의 「달문가」에는 달문이 아는 사람 집에서 자다가 주인이 밤에 돈을 잃어버렸는데, 달문이 잘못했다 사과하고 그 돈을 돌려준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그날 같이 묵은 다른 객이 며칠 후 돈을 갚으러 와 '마침 주인이 집에 없어 말하지 못하고 가져갔다'고 하여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21] 이옥의 「장복선전」에는 달문이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친구가 은을 잃어버리고 달문을 의심하자 달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 은을 갚아주고, 후에 친구가 은을 되찾게 되어 달문에게 사과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22] 한편 조수삼은, 달문이 방문한 약방에서 인삼이 사라지자 주인이 안 보는 사이 누가 사갔다며 달문이 대신 값을 치르고, 이후 사라진 인삼이 약방에서 우연찮게 발견되어 주인이 달문에게 사과했다고 서술하고 있다.[23] 이 일로 인하여 달문은 세상에 이름이

21) 위의 책, 431면.
22) 李鈺,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張福先傳」, 『역주 이옥전집』 2, 소명출판, 2001, 263~264면.
23) 趙秀三, 「紀異」, 『秋齋集』 卷7, "一日達文之某氏肆, 主人出示直百金一兩數根人蔘曰: '此何如?' 達文曰: '誠佳品也.' 主人適入內室, 達文背坐望牖外而已. 主人出曰: '達文人蔘何在?' 達文回顧無人蔘矣, 乃笑曰: '我適有願買人, 已付之矣, 從當輸直也.' 明日主人將燻鼠, 見竪櫃後有紙裹, 出而審之, 則昨日人蔘也. 主人大驚, 邀達文而告之故曰: '若何不言不見人蔘, 而謾曰賣之乎?' 達文曰: '人蔘我已見而忽失之, 我若曰不知, 則主人獨不謂我盜乎?' 於是主人愧謝僕僕."

나게 되었다. 약방(지인의 집, 친구 집)에서 돈(은, 인삼)이 사라져 의심을 받게 되었다가 혐의를 벗는다는 핵심 구조는 여러 기록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즉 실제로 달문이 이와 유사한 억울한 상황에서 의롭게 대처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홍신유나 이옥, 조수삼의 기록에 등장하는 달문의 약방 에피소드와 「광문자전」에서의 약방 에피소드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약방(지인의 집, 친구 집)에서 돈(은, 인삼)이 사라져 의심을 받게 되었다가 혐의를 벗는다'는 공통 서사 구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혐의를 벗는 과정이다. 여타 기록에서는 달문이 사라진 돈을 돌려주었다거나(홍신유), 은을 빌려 갚아 주었다거나(이옥), 달문이 대신 인삼 값을 치름으로써(조수삼) 혐의를 벗는다. 즉 자신의 돈으로 대신 갚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은을 빌려 갚아 준 것이다. 그런데 「광문자전」에서는 광문이 누명을 쓰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 그런 지 한참 지난 어느 날 약방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도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를 찬찬히 살펴본 다음 대문을 나서 가버렸는데, 마음속으로는 몹시 꺼림칙한 눈치였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화들짝 놀라며, 광문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안색이 바뀌면서 그만두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으며, 또한 감히 그만두고 떠나버리지도 못하였다.[24]

다른 서술자들이 사건 개요만 간단히 서술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연암은 이처럼 광문이 의심받는 장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답답해 하는 광문의 심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달문이 누명을 쓰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달문의 이 약방 사건에 대해 대다수의 기록에서는 달문을 직불의(直不疑)에 견주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 관료였던 직불의가 휴가를 얻어 집에 가던 중 숙소에서 황금이 사라져 의심을 받자 직불의가 황금을 사서 주인에게 돌려 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연암은 어째서 광문을 직불의에 견주지 않고 여느 기록자들과 다르

24) 박지원, 「광문자전」, 『연암집』 권8 별집, "久之, 富人出門, 數數顧, 還復入室, 視其扃. 出門而去, 意殊怏怏. 旣還, 大驚熟視文, 欲有所言, 色變而止. 文實不知, 日默默, 亦不敢辭去."

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을까. 연암은, 자신이 누명을 썼다 하더라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 등을 빌려 갚아 혐의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여겼던 것은 아닐까? 즉 달문의 약방 에피소드를 다양한 버전으로 듣고 있던 연암은 『논어』의 다음 구절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누가 미생고를 정직하다고 했는가. 어떤 이가 식초를 빌리러 오니 이웃에서 빌려다 주던데."[25]

자신에게 없는 것을 빌려서까지 내주는 것을 공자는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 했다. 광문이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누명을 속히 벗고자 다른 이에게 돈을 빌려 주인에게 갚는 것을 연암은 마뜩잖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약방 에피소드 뒤에는 광문의 사람됨에 대한 서술이 이어진다.

> {단락3: 광문의 사람됨}
> ⑨ 광문의 사람됨: 추악한 외모와 형편없는 말솜씨 등.

이 단락은 앞의 거지 패두 에피소드나 약방 에피소드, 혹은 뒤에 이어지는 운심 에피소드와 달리 어떤 핵심적인 에피소드 없이 광문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일견 단편적 정보들을 질서 없이 나열한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 혹은 작품의 결말부처럼 논평을 하기에 앞서 주인공 광문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연암이 고도의 계산 아래 서술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고 마지막 서사 단락의 운심 관련 에피소드를 먼저 보자.

광문이 유명해지자 한양의 이름난 기생들은 광문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했다. '광문이 소문을 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도 못 나갔다'는 것이다.[26] 당시 광문의 신용도는 타인에 대한 평가까지도 좌우할 만큼 영향

25) 『論語』, 「公冶長」, "子曰: '孰謂微生高直, 或乞醯焉, 乞諸其隣而與之.'"

www.kci.go.kr

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 단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락4: 운심 에피소드}
⑩ 궁궐 하급 관리들이 이름난 기생 운심을 찾아가 춤을 요청하였으나 추지 않음.
⑪ 광문이 추한 행색으로 술에 취한 채 술자리에 끼어듦.
⑫ 관리들이 광문을 꺼렸으나 광문이 상좌에 앉고서야 운심이 검무를 춤.

궁궐 호위를 담당하던 우림아(羽林兒)와 궁궐 각전(各殿)의 별감, 부마도위의 청지기 등 하급 관리들이 당대 서울에서 유명했던 기생 운심을 찾아가 춤을 출 것을 청하였지만 운심은 선뜻 춤을 추지 않았다. 때마침 광문이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운심은 광문이 상좌에 앉고서야 검무를 추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운심은 아무 앞에서나 춤을 추지 않고 광문 같은 이 앞이라야 춤을 추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운심은 궁궐 관리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보다 광문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운심은 광문이라는 존재를 하급 관리들보다 훨씬 중시하고 있다. 광문은 그의 신의로도 이름이 높았지만 광대로도 명성이 높아 다른 광대들이 그를 귀신 모시듯 떠받들었다고 하니[27] 신용 높고 광대들의 선망의 대상이던 광문이 기생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광문과 기생들과의 관계는, 비록 광문의 명성이 높았다 해도 상하 관계는 아니었던 듯하다. 1755년 나주 괘서 사건 당시 고부(古阜) 수령으로 있던 심발(沈鏺)이 삼수부(三水府)로 유배되었는데, 고부에서 총애하던 한 기생이 달문의 도움으로 삼수부 유배지까지 찾아갔다는 기록이 『파수록(破睡錄)』에 보인다. 광문은 기생과 인간적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결교(結交)하였던 것이다.[28]

약방 에피소드가 끝이 나고 광문의 사람됨에 대해 서술한 데 이르면 글이 종반으로 내닫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운심과 관련한 새로운

26) 박지원, 「광문자전」, 『연암집』 권8 별집, "漢陽名妓, 窈窕都雅, 然非廣文聲之, 不能直一錢."
27) 주석 20) 참조.
28) 박준원, 앞의 논문, 114~115면.

www.kci.go.kr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이러한 기법은 글에 여운을 남기는 동시에 정형화된 서사 단락의 구성에 변화를 주어 긴장감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29] 광문과 관련한 단순 정보들을 나열한 듯한 인상을 주는 세 번째 서사 단락을 맨 마지막에 배치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순차적 구성과 보조적 인물의 활용

본전의 서사는 크게 광문이 거지 패두로 있을 때 겪은 일, 약방에서 겪은 일, 광문의 사람됨, 운심과 관련한 에피소드의 네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거지 패두 에피소드 (①~⑤)	→	[2] 약방 에피소드 (⑥~⑧)	→	[3] 광문의 사람됨 (⑨)	→	[4] 운심 에피소드 (⑩~⑫)

이 가운데 [1], [2], [4]는 각각 다른 시기에 있었던 독립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무작위로 배치된 것이 아니다. 연암은 광문이 유명해지기 전([1]), 광문이 유명해지게 된 결정적 계기([2]), 광문이 유명해지고 난 후의 상황([4])을 순차적이고 계기적으로 배치,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조적 완결성을 띨 뿐 아니라 작품의 통일성을 위하여 면밀하게 고려, 서술된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광문이 겪게 되는 위상 변화가 서사의 기복을 형성하고 있다면,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메시지들은 작품의 통일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1]에서 부각되고 있는 광문의 형상은 '의로움[義]'이다. 거지 패두 광문이 협의를 입고 도망하였다가, 죽은 아이를 공동묘지에 묻어 준 저간의 이야기를 들은 후 '집주인은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겼다.'[舍主心義文]고 하였다. [2]에서도 광문이 약방 사건을 겪

29) 가령 남공철의 「박산여묘지명」에서는 묘주 박남수와 관련한 에피소드 뒤에 人定 기술이 이어져 글이 맺어질 듯하다가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하여 의외의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마지막 짧은 에피소드가 끝남으로써 여운을 길게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남공철, 「박산여묘지명」, 『금릉집』 권17 참조.

고 나서 약방 부자가 '자기가 잘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들, 큰 장사치들에게 두루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遍譽所知諸君及他富人大商賈廣文義人]라 하였다. [1]과 [2]에서 부각되고 있는 광문의 의로움은 다름아닌 '신의(信義)'라 할 수 있다. 그런데 [4]에서는 광문의 의로움이 표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4]에서는 광문을 대하는 운심의 태도를 통해 광문의 신의를 확인할 수 있다. 하급 관리들이 와서 요청해도 꿈쩍 않던 운심이 광문의 콧노래에 스스로 춤을 추었다는 것은 운심이 광문에게 큰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서사 단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며 원심력이 강화된다면, 통일된 메시지[信義]를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서사의 구심력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에서 주인공 광문을 둘러싸고 등장하는 보조적 인물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의 주요한 세 가지 에피소드에는 각각 보조적 인물이 등장한다. [1]에서의 집주인 영감, [2]에서의 약방 주인, [4]에서의 운심이 그들이다. [1]에서는 집주인의 시선을 통해 광문의 결백함이 입증되는가 하면 집주인이 광문을 약방에 취직시켜 주기까지 하고 있다. [2]에서는 약방 주인이 지인들을 통해 광문을 유명해지게 하고 있다. [4]에서 운심은 광문이 상좌에 앉고서야 검무를 춤으로써 광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보조적 인물들은 그 자체로 작품 속에서 생동하고 있으면서 나아가 주인공 광문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사 단락([1], [2], [4])은 각각 자체적으로 '갈등-해소'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1]에서 광문은 거지 아이를 죽였다는 오해를 받고 피신하였다가 집주인에게 감금되는 '갈등'을 겪는다. [2]에서는 약방 주인에 의해 광문이 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갈등'을 겪고 있으며 [4]에서는 형편없는 행색의 광문이 운심의 집에서 하급 관리들에게 눈치를 받는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각각 집주인, 약방 부자, 운심에 의해 해소된다. 각각의 에피소드에 갈등이 존재하고, 보조적 인물들이 그 갈등을 심화하고 해소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보조적 인물들도 '우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에서 긴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3. 함축적 형상화를 통한 캐릭터의 보완

그럼 [3] '광문의 사람됨'과 관련한 서술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은 얼핏 잡다한 정보들을 질서 없이 모아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볼 것만은 아니다. 원문의 행문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이 단락은 단편적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긴밀히 조직된 서술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단락[3] 전체를 인용한다.

> 광문의 사람됨은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였다.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다 들어갈 지경이었으며 만석희(曼碩戱)를 잘하고 철괴무(鐵拐舞)를 잘 추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
> "네 형은 달문이다."
>
> 라고 놀려 댔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
> 광문은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도 역시 웃통을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뭐라고 중얼대면서 허리를 굽히고 땅에 금을 그어 마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듯한 시늉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 대고 싸우던 자들도 웃고 말아서, 다들 흩어져 가 버리는 것이었다.
>
> 광문은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여전히 머리를 땋고 다녔다.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
> "사람들은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는 법이오. 하지만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니 나는 못생겨서 스스로 용모를 꾸며 보일 수도 없다오."
>
> 하였다. 남들이 집을 마련하라고 권하면,
>
>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마련해서 무얼 하겠소?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데, 한양 안에 가구가 자그마치 팔만 호라오. 그러니 내가 날마다 처소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오."
>
> 하고 사양하였다.[30]

30) 박지원, 「광문자전」, 『연암집』 권8 별집, "文爲人, 貌極醜, 言語不能動人. 口大幷容兩拳, 善曼碩戱, 爲鐵拐舞. 三韓兒相訾詬, 稱爾兄達文, 達文又其名也. 文行遇鬪者, 文亦解衣與鬪, 啞啞俯劃地, 若辨曲直狀, 一市皆笑, 鬪者亦笑, 皆解去. 文年四十餘, 尙編髮. 人勸之妻則曰: '夫美色, 衆所嗜也. 然非男所獨也, 唯女亦然也, 故吾陋而不能自爲容也.' 人勸之家則辭曰: '吾無父母兄弟妻子, 何以家爲? 且吾朝而歌呼入市中, 暮而宿富貴家門下. 漢陽戶八萬爾, 吾逐日而易其處, 不能盡吾之年壽矣.'"

www.kci.go.kr

연암은 먼저 광문의 외모와 구변에 대해 언급한다. 외모가 극히 추하고 말솜씨가 대단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서술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입이 커서 주먹이 두 개나 들락날락할 정도였고 만석희를 잘하고 철괴무를 잘 추었다는 것이다. 입이 커서 주먹이 들어갈 정도였다는 것 자체로도 추한 외모의 특징을 잘 지적하는 것이지만, 만석희(曼碩戱)를 잘하고 철괴무(鐵拐舞)를 잘 추었다는 것도 그저 광문의 재주를 언급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만석희는 '만석중놀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황진이가 지족선사를 파계시킨 일을 소재로 한 일종의 가면극이다.[31] 한편 철괴무는 중국 전설 속 팔선(八仙) 가운데 하나인 철괴이(鐵拐李)를 흉내 낸 춤이다.[32] 만석희는 황진이가 선사를 파계시키는 과정을 공연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음란하고,[33] 철괴무는 거지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저는 신선을 흉내 낸 일종의 병신춤으로 이는 우스꽝스러운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할 때 "네 형은 달문이다"라 한 것은 광문이 추한 외모에 우스꽝스러운 춤을 잘 춘 것을 겨냥해 놀리는 말이었다. 광문은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였기에 아이들까지도 알고 있었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광문의 인간 됨됨이보다는 그의 행색이나 장기(長技)에 유의하여 그런 말(네 형은 달문이다)을 입에 올렸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광문의 외모에 대한 서술이다. 원문은 '口大幷容兩拳, 善曼碩戱, 爲鐵拐舞. 三韓兒相訾傲, 稱爾兄達文'의 25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여러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광문이 말솜씨가 없다는 것도 그저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키킬 만하지 못하다"[言語不能動人]라고 간단히 서술하고 만 것이 아니다. 이어지

31) 曼碩戱는 종래 개성 지방에서 연행되던 인형극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전경욱 교수는 수원 화성 완공 기념식을 그린 落成宴圖에 인형이 아닌 사람이 직접 탈을 쓰고 가설 무대인 彩棚에서 만석중놀이를 하는 모습을 발견, 만석희가 인형극이 아니라 사람이 탈을 쓰고 공연하던 것임을 밝혔다. 전경욱, 『한국 전통연희사』, 학고재, 2020, 275~279면 참조.

32) 鐵拐李의 본명은 李玄으로, 신선이 된 후 그는 늘 蓬頭亂髮에 때 낀 얼굴로 절뚝거리며 다녀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늘 쇠지팡이[鐵拐]를 짚고 다녀 '鐵拐李'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鐵拐李에 대해서는 鄧方 主編, 『中國古代神仙祖廟百例』, 中國華僑出版社, 1993, 205면 참조.

33) 이덕무는 「士小節」(『靑莊館全書』 권30)에서 "집에 山臺·鐵枴·曼碩 등 음란한 놀이를 베풀고 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구경하게 해서 웃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도리가 아니다."[家設山臺鐵枴曼碩淫亂之戱, 使婦人觀之, 笑聲出於外, 非正家之道.]라 하였다. 이로 보면 山臺·鐵枴·曼碩 등의 놀이가 음란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www.kci.go.kr

는 서술에서 광문이 길을 가다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였는지 언급하고 있다. 광문이 웃통을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중얼대면서 허리를 굽히고 땅에 금을 그어 마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듯한 시늉을 하니' 구경하던 사람이건 싸우던 사람이건 어이가 없어 웃으며 떠나갔다고 쓰고 있다. 뭐라고 중얼대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고, 마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듯한 시늉을 하였다는 것은 광문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어 그의 행동으로 그 뜻을 가늠할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광문이 말을 조리 있고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점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간단한 일화다.

이렇게 광문의 추한 외모와 보잘것없는 말솜씨에 대한 서술 뒤, 두 가지 화제가 더 등장한다. 장가들라는 주문(注文)과 집을 마련하라는 주문, 그리고 그에 대한 광문의 답이 그것이다. 난데없이 연암은 왜 이러한 서술을 추가했을까? 장가들라는 사람들의 말에 광문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미색을 좋아하니 못생긴 자신을 좋아할 여자가 없을 것이라 말한다. 광문의 이러한 대답은 그의 품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처럼 추악한 외모의 남자를 좋아할 리 없다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광문의 품성에 기인하는 말인 것이다. 이는 공자로부터 주자로 이어지는 저 '서(恕)'나 '추기급물(推己及物)'과 궤를 같이하는 세계 인식이라 할 수 있다.[34]

또 연암이 굳이 '장가들라'는 말과 '집을 마련하라'는 말을 들어 광문의 대답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즉 '혼인'과 '집'은 전통 사회에서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에 대한 광문의 부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냄으로써 광달하고 자유분방한 광문의 캐릭터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처럼 연암은 단락[3]에서 광문의 특징적 면모를 집약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광문의 그 특징적 면모란 추하고 우스꽝스러운 외모, 형편없는 말솜씨,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서사 단락에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였기에 연암은 단락[3]을 통해 이렇게 광문의 특징적 면모를 보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

34) 『論語』「衛靈公」,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주자는 이에 대해 "推己及物, 其施無窮, 故可以終身行之."라는 주석을 덧붙이고 있다.

Ⅳ. 고문사(古文辭)로서의 성취와 『사기』의 영향

1. 간결하고 정제된 표현

연암은 수학기에 「광문자전」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고문사(古文辭)로 크게 칭찬을 받았다고 했다. 과연 이 작품의 어떤 점이 고문사로서 뛰어난 점인가.

우선 연암이 말한 고문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고문사란 '고문(古文)'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혹자는 진한고문(秦漢古文)을 가리키기도 하였고, 혹자는 당송고문(唐宋古文)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사람마다 고문의 개념을 달리 파악했던 것이다. 연암은 이 고문사를, 수식(修飾)에 힘쓰는 변려문(駢儷文)이나 공령문(功令文)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35] 기실 연암은 '상투적이거나 격식만 차리는 듯한 표현으로 글을 꾸미는 데 힘쓰는 태도'를 비판하고,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마음을 담은 글을 고문사라 여겨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36]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마음을 담은 글이 어떤 글인지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연암이 그 반대, 즉 상투적이고 격식만 차리는 듯한 표현을 썼는가를 확인해 보면 「광문자전」이 연암 자신이 지향한 고문사를 구현하는 데 다가서고 있는지의 여부를 얼마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상투적이고 격식만 차리는 듯한 표현을 넘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습관적인 투식어구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불필요한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며 필요한 말, 필요한 글자만 쓰다 보면 간결하고 정제된 표현에 이르게 된다.

연암은 상당수의 글에서 그리하였듯 「광문자전」에서도 간결하고 질박하며 정제된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가령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약방 에피소드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약방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

35) 연암이 古文辭를 이런 의미로 사용한 단적인 예로는 「자소집서」(『연암집』권3)의 다음 구절을 들 수 있다. "長而學功令, 習爲駢儷藻繪之文, 旣得之也, 則爲弁髦筌蹄, 其未得之也, 則白頭碌碌, 豈復知有所謂古文辭哉."

36) 朴趾源, 「自序」, 『映帶亭賸墨』, 『燕巖集』 卷5, "夫敬以禮立, 而嚴威儼慤, 非所以事親也. 若復廣張衣袖, 如見大賓, 略叙寒暄, 更無一語, 敬則敬矣, 知禮則未也. 安在其愉色怡聲, 左右無方也."

한참 지난 어느 날 약방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도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를 찬찬히 살펴본 다음 대문을 나서 가버렸는데, 마음속으로는 몹시 꺼림칙한 눈치였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화들짝 놀라며, 광문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안색이 바뀌면서 그만두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으며, 또한 감히 그만두고 떠나버리지도 못하였다.

久之, 富人出門, 數數顧, 還復入室, 視其扃. 出門而去, 意殊怏怏. 旣還, 大驚熟視文, 欲有所言, 色變而止. 文實不知, 日默默, 亦不敢辭去.

원문을 보면 불필요한 글자는 하나도 쓰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어조사[而]조차도 꼭 필요한 데 써서 글자의 의미를 온전히 새기게 하고 있으며 어느 글자 하나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즉 글자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뜻을 내는 행문을 구사하고 있다. 인용문의 후반부를 예로 들자면 일반적으로 "[富人]旣還, 大驚[而]熟視文, [似]欲有所言, [而]色變而止[焉]. 文實不知[其故], [而日]日默默, 亦不敢辭去[也]."와 같이, [ ] 안의 글자들을 포함하여 글을 쓰기 십상인데 연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간결하고 질박하며 정제된 표현은 굳이 어떤 특정 문장을 들어 설명할 것 없이 작품 전체에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문(古文)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연암은 그 고문의 특징을 극대화하여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연암은 이 글에서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대우(對偶)가 아니라 의미상 심원한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살핀 서사 단락의 순차적인 배치와 계기적 서술, 서사 단락 간 긴밀한 연결, 그리고 서사 단락마다의 '갈등'과 그것의 '해소'가 반복되어 의미상 리듬감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단락[3]에서 보듯 짧은 행문(行文)에 많은 뜻을 함축하는 재주라든지 장면화를 통해 사건을 개괄하는 솜씨도 이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광문자전」이 고문사로서 뛰어나다고 칭찬을 받은 것은 이러한 점들 때문만은 아니다. 당시 글쓰기의 전범으로 여겨졌던 문장들의 기법을 잘 본받은 것 또한 이 글이 고문사로 칭송된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2. 『사기』의 영향

『과정록』에는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양반전」 등이 각각 본뜨고 모범으로 삼은 대상이 있다고 하고 가령 「양반전」은 전한(前漢) 왕포(王褒)의 「동약(僮約)」을 본받아 지었다는 이재성(李在誠)의 언급이 있다.[37] 「동약」의 내용은 이렇다. 왕자연(王子淵)이라는 이가 어느 과부 집에 들러 그 집 종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는데 종이 이를 거부하자 왕자연이 과부로부터 종을 매수, 계약서를 엄격하게 작성하여 그것을 위반하면 매 100대를 때리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를 왕포 당시의 정치 현실을 풍자한 우언으로 보기도 하는데,[38] 「동약」의 이러한 특징은 돈으로 양반을 사고자 하는 부자에게 양반의 행동지침을 적은 증서를 보여 양반 되기를 거부하도록 설정한 「양반전」과 구성상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그럼 「광문자전」은 어떤 글을 본받아 지었을까. 수학기의 연암은 『사기』를 애호하였던바, 문체상의 유사한 표현이나 고사성어, 현실 비판적 면모나 사실적 표현 수법 등에서 연암이 『사기』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그 영향은 수학기의 대표적인 저작인 『방경각외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39] 『사기』는 조선후기에 들어 역사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데 머물지 않고 문장 학습의 전범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40] 「광문자전」에 국한하여 보아도 『사기』의 영향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광문(달문)이 당대에 유명해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바로 두 번째 서사 단락의 약방 일화다. 광문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이들 대부분이 이 일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 홍신유와 조수삼이 광문을 직불의(直不疑)에 빗대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직불의는 전한(前漢)의 관료로 『사기』 「만석장숙열전」에는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

37) 박종채, 앞의 책, 23~24면.

38) 김용철, 「<양반전>의 우언과 풍자」, 『동양한문학연구』 제39집, 동양한문학회, 2014에서 「동약」과 「양반전」을 자세히 비교하고 있다.

39) 김명호, 「燕巖 문학과 『史記』」,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김영, 「연암을 읽는 두 가지 코드, 『사기』와 『장자』」, 『민족문학사연구』 제30권, 민족문학사학회, 2006.

40) '文必秦漢'을 표방하던 秦漢古文派는 물론이고 李植이나 李宜顯, 金昌協 등 唐宋古文을 숭상하던 이들도 사기를 문장 학습의 텍스트로 인식하였다. 윤지훈, 「朝鮮後期 文人의 『史記』 認識과 評價에 관한 一考 -「項羽本紀」에 대한 諸家批評을 中心으로」, 『동방한문학』 제35호, 동방한문학회, 2008, 257~258면 참조.

www.kci.go.kr

> 새후(塞侯) 직불의(直不疑)는 남양(南陽) 사람이다. 낭관이 되어 문제(文帝)를 섬겼다. 그와 같은 방을 쓰던 사람이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는데, 실수로 같은 방을 쓰던 다른 낭관의 황금을 가지고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금 주인은 황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직불의가 훔쳐간 것으로 함부로 의심하였다. 직불의는 사죄하고 황금을 사서 그에게 돌려주었는데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돌아와 황금을 되돌려주자 그 금을 잃어버렸던 낭관은 몹시 부끄러워했다. 이로 인해 장자(長者)라 칭해졌다.[41]

홍신유는 「달문가」에서 "먼 옛날 중국 한나라 사람 직불의가/천년 후 조선 땅에서 태어났는지"[42]라 하는가 하면 조수삼도 "웃으면서 직불의처럼 값을 치러주니"[43]라 하여 달문을 직불의에 견주고 있다. 홍신유나 조수삼의 기록에서는 공통적으로 달문이 누명을 쓴 상태에서 돈이나 인삼을 대신 갚아주었다고 하고 있다. 대신 갚아주어 혐의를 벗어나는 달문 이야기가 직불의 고사와 구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연암 또한 『사기』에 수록되어 있는 직불의 고사를 익히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연암이 직불의 고사를 의식하고 이 일화를 첨입하였다 하더라도 「광문자전」의 해당 서술은 『사기』를 본뜨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누명을 벗고자 임시방편으로 남의 것을 빌려 혐의를 벗은 직불의의 행위를, 연암은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약방 사건을 계기로 광문은 장안에 유명세를 떨치며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 광문을 칭송하는 이야기가 서울 안에 자자하게 되었다. 광문은 당시 서울에서 일약 '신의의 상징'으로 부상하여 광문이 빚보증을 서면 천금이라도 당장 내주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연암은 광문만을 부각시키지 않고 앞의 거지 패두 일화와 약방 일화에 등장하는 보조적 인물, 즉 집주인과 약방 부자에 대해 다시 언급한다. 다음 문장이 그것이다.

---

41) 司馬遷, 「萬石張叔列傳」, 『史記』 卷103, "塞侯直不疑者, 南陽人也. 爲郎, 事文帝. 其同舍有告歸, 誤持同舍郎金去, 已而金主覺, 妄意不疑, 不疑謝有之, 買金償, 而告歸者來而歸金, 而前郎亡金者大慚, 以此稱爲長者."

42) 임형택 편역, 앞의 책, 431면.

43) 趙秀三, 「紀異」, 『秋齋集』 卷7, "談笑還金直不疑."

www.kci.go.kr

그 당시 한양 안에서는 모두들 예전에 광문을 후히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하고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칭찬했으며, 약방 부자에 대해서는 점잖은 어른이라고 더욱더 칭찬하였다.[44]

이 또한 『사기』 「자객열전」의 섭정(聶政) 이야기에서 착안한 기법으로 보인다. 섭정은 자신을 알아 준 엄중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이다. 한(韓)나라 재상 엄중자는 자신과 대립하던 재상 협루를 처치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 나섰다가 개백정 노릇을 하는 섭정을 만난다. 섭정은 노모가 살아 계셔서 엄중자에게 몸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자 엄중자는 섭정의 어머니를 위해 조건 없이 100금을 주었고 섭정은 끝내 받지 않았다. 모친이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자 섭정은 엄중자를 찾아가, 재상의 신분으로 개백정인 자신을 알아 준 엄중자의 원수를 대신 갚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협루를 죽이고는 스스로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을 도려냈으며 배를 갈라 창자를 긁어내고 죽었다. 협루를 죽인 이가 섭정 자신임이 밝혀지면 누이 섭영(聶榮)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협루를 죽인 신원 미상 시신의 정체를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섭영은 자신이 섭정의 누이임을 밝히고 슬퍼하다가 죽는다. 사마천은 그 뒤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진(晉), 초(楚), 제(齊), 위(衛) 나라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섭정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누이 또한 대단한 여인이다.** 전에 만약 그 누이(섭영)가 연약하여 참고 견디는 성격이 아니어서 해골을 드러내는 고난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천리 험한 길을 달려와 이름을 나란히 하여 누이와 동생이 한나라 시정 바닥에서 죽게 될 것을 알았더라면 또한 감히 몸을 엄중자에게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엄중자 역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 현사(賢士)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45] (괄호 및 강조 - 인용자)

---

44) 박지원, 「광문자전」, 『연암집』 권8 별집, "當是時, 漢陽中皆稱廣文前所厚遇舍主之賢能知人, 而益多藥肆富人長者也."

45) 司馬遷, 「刺客列傳」, 『史記』 권86, "晉、楚、齊、衛聞之, 皆曰: '非獨政能也, 乃其姊亦烈女也. 鄉使政誠知其姊無濡忍之志, 不重暴骸之難, 必絶險千里以列其名, 姊弟俱謬於韓市者, 亦未必敢以身許嚴仲子也. 嚴仲子亦可謂知人能得士矣!'"

www.kci.go.kr

사마천은 주인공 섭정에 대해 쓰면서 보조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엄중자와 섭영에 대해 사람들의 말을 빌려 간접적 평가를 행하고 있다. 연암 또한 「광문자전」에서 보조적 인물인 집주인과 약방 부자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단락[4]에서 광문이 운심의 집에 찾아가 하리(下吏)들의 연회에 참석하는 장면 역시 『사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광문이 누추한 행색으로 관리들의 연회에 끼어드는 다음 장면은 부조리한 광경을 연출한다.

> 광문이 그날 밤 운심의 집으로 가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술자리에 끼어들어가 스스로 윗자리에 앉았다. 광문은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거지는 안하무인으로 의기가 양양하였다.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게욱질을 해 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튼 채였다. 온 좌객이 질색하여 광문에게 눈총을 주어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럴수록 광문은 다가앉아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높으락나지락 콧노래를 불렀다.46)

관리들의 연회석상에 불청의 객으로 등장한 광문은 그 행색도 행색이었지만 '온 좌객이 질색'하여 '눈총'을 줄 만큼 거리낌이 없어 극도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광문이 무릎을 치며 콧노래를 부르자 춤을 추기를 주저하던 운심이 기꺼이 검무를 추게 된다. 이 장면은 『사기』「위공자열전」의 한 장면, 즉 위공자 신릉군이 대량성(大梁城) 문지기로 있던 은사(隱士) 후영(侯嬴)을 맞이하기 위해 연회를 베푸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47)

> 공자는 이에 술자리를 베풀고 빈객들을 많이 모아 자리에 앉혀 두었다. 공자는 거마를 뒤따르게 하고 왼쪽 자리를 비워둔 채 스스로 이문(夷門)의 후생(侯生)을 맞이하러 갔다. 후생이 다 떨어진 의관을 갖추고 곧바로 수레에 올라 공자보다 상석에 앉으면서도 사양하지 않으니, 공자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48)

---

46) 박지원, 「광문자전」, 『연암집』 권8 별집, "文夜往彷徨堂下, 遂入座, 自坐上坐. 文雖弊衣袴, 擧止無前, 意自得也. 眦膿而眵, 陽醉噎, 羊髮北髻, 一座愕然, 瞬文欲毆之. 文益前坐, 拊膝度曲, 鼻吟高低."

47) 이 점은 김명호, 「燕巖 문학과 『史記』」,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38~39면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48) 司馬遷, 「魏公子列傳」, 『史記』 권77, "公子於是, 乃置酒, 大會賓客坐定. 公子從車騎虛左, 自迎夷門侯生. 侯生攝敝衣冠, 直上載公子上坐不讓, 欲以觀公子."

다 떨어진 의관을 한 후영이 위공자의 상석에 오르는 장면은 광문이 해진 옷을 입고 상좌에 앉아 거리낌없이 행동하는 장면과 흡사하다. 이렇게 부조리한 장면이 펼쳐지는 대목 역시 『사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흔적으로 보인다.

이렇듯 「광문자전」 곳곳에서 『사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49] 그렇다고 『사기』에서 가져온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석장숙열전」의 직불의 고사는 연암이 재해석하여 광문으로 하여금 직불의와는 다른 처신을 하게 하였고, 보조적 인물들에게 의미를 부여한 「자객열전」의 표현은 빌려오되 그 보조적 인물들이 광문 이야기에서 맥락에 걸맞게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표현이 「광문자전」에서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또 광문이 하급 관리들의 술자리에 끼어드는 부조리한 상황도 「위공자열전」의 부조리한 장면을 본받되 광문의 거리낌없는 캐릭터에도 걸맞아 「광문자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본전에서 구사하고 있는 이러한 기법들은 『사기』 이래로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연암이 『사기』 아닌 다른 글에서 이러한 설정과 표현을 가져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암이 이 글을 '수학기'에 지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연암은 한창 『사기』에 심취해 그 정신과 표현을 배우고 있던 때 「광문자전」을 지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광문자전」 본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기』의 영향은 수학기 연암이 도달한 문장 수준을 설명하는 데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한다.

Ⅴ. 결론

「달문가」에서 홍신유는 달문의 일생을 순차적으로 읊고 있다. 작품이 끝

49) 본전에서뿐만 아니라 서후에서도 『사기』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작자 연암이 광문을 직접 본 일을 적은 것이다. 연암은 열여덟 살에 병을 심하게 앓아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민간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에 대해 물어 듣고는 하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광문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더라고 했다. 그리고는 "나도 어렸을 적에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극히 추악했다[余亦幼時, 見其貌極醜]."라는 서술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사기』 「유협열전」 마지막 대목 사마천의 논평, 즉 "나는 郭解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외모는 보통 사람에 미치지 못하였고 말도 알아듣기 어려웠다[吾視郭解狀, 貌不及中人, 言語不足採者]."를 떠올리게 한다.

www.kci.go.kr

나갈 무렵, 홍신유는 달문을 이렇게 평가한다.

> 헛된 이름 얻으면 자신을 그르치기 알맞다네.
> 달문이 역적 옥사에 속절없이 끌려들어
> 멀고 험한 땅으로 귀양을 갔다가
> 이내 풀려나게 되었더라.[50]

달문이 실제에 비해 과도한 명성을 얻어 오히려 그 명성 때문에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헛된 명성을 좇는 선비들은 자기 몸 보전하기 어려움을 역설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연암이 『방경각외전』 자서에서 광문을 두고 언급한 취지와 부합한다. 이후 홍신유는, 과도한 명성으로 고초를 겪고 결국 흔적도 없이 신선처럼 사라져버린 달문을 칭송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홍신유가 「달문가」를 지은 것은 달문이 역모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풀려나 방랑길에 오른 이후, 즉 옥사(獄事)가 있던 1764년 이후다. 여기서 우리는 달문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시기에 따라 갈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모 사건 이전에는 신의 있는 인물, 역모 사건 이후에는 과도한 명성으로 화를 당한 인물로 평가되는 것이다. 연암이 본전을 지을 당시만 해도 달문은 신의로운 인물로 명성이 높았다. 본전에서의 광문은 과도한 명성 때문에 화를 당하기 전의 달문인 것이다. 또 서후를 지은 시기는 달문이 과도한 명성 때문에 화를 당한 이후여서 연암 또한 달문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걸맞게 자서와 서후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서후나 자서가 기실 광문(달문)을 폄하하는 데 그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서후는 광문의 생애 후반기에 대한 일종의 후일담이며 자서는 광문을 폄훼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헛된 명성을 좇는 이들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지은 것이다.

연암이 비록 「광문자전」 서후와 『방경각외전』 자서를 지을 당시에 달문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달라졌다 해도 수학기에 지은, 신의로운 인물 광문을 입전한 본전은 그것대로 남겨 둘 필요성을 느꼈기에 「광문자전」 본전은 「역학대도전」이나 「봉산학자전」처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인

50) 임형택, 앞의 책, 434면.

www.kci.go.kr

다. 더군다나 이 작품은 그의 출세작이기도 했기에 각별한 애착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주로 「광문자전」(본전) 자체의 성취를 논하였다. 연암의 출세작인 이 작품의 뛰어난 점은 서사 단락의 순차적 배치와 계기적 서술, 그러면서도 각각의 서사 단락을 일관하는 가치인 신의(信義)를 부각시키고 있는 점, 각 단락이 '갈등-해소'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점, 그리고 『사기』의 여러 부분에서 표현과 의상(意想)을 빌려왔으면서도 그것이 기운 흔적 없이 작품에 밀착되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광문자전」은 흥미로운 일화들을 중심으로 한 서사 단락의 원심력에 그것들을 관류하는 가치(신의) 및 구조(갈등-해소)가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두 힘이 긴장감을 유지한 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論語』

『史記』

南公轍, 『金陵集』, 한국고전번역원 DB.

朴宗采, 박희병 역,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8.

朴趾源, 『燕巖集』, 한국고전번역원 DB.

李 鈺,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역주 이옥전집』 2, 소명출판, 2001.

趙秀三, 『秋齋集』, 한국고전번역원 DB.

2. 단행본

김명호, 『박지원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_____,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김영동, 『박지원소설연구』, 태학사, 1988.

임형택 편역, 『이조시대 서사시』 2, 개정판, 창비, 2013.

전경욱, 『한국 전통연희사』, 학고재, 2020.

陳必祥, 『한문문체론』, 심경호 역, 이회, 1995.

鄧方 主編, 『中國古代神仙祖廟百例』, 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3.

3. 논문

강현모, 「연암의 광문전승에 나타난 서사구조와 지향의식」, 『한국언어문학』 제81집, 한국언어문학회, 2012, 137~157면.

김승호, 「<달문가>, <광문자전>, <달문> 각편의 서사유형적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2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9, 141~180면.

김 영, 「연암을 읽는 두 가지 코드, 『사기』와 『장자』」, 『민족문학사연구』 제30권, 민족문학사학회, 2006, 148~170면.

김용철, 「<양반전>의 우언과 풍자」, 『동양한문학연구』 제39집, 동양한문학회, 2014, 87~117면.

두창구, 「연암소설 구성고(其一)-<광문자전>과 <열녀함양박씨전>을 중심으로」, 『관대논문집』 제20집 1권, 관동대학교, 1992, 121~139면.

박기석, 「광문자전 연구」, 『국어교육』 제96권, 한국어교육학회, 1998, 375~394면.

www.kci.go.kr

박준원, 「광문자전 분석-광문의 실체와 형상」, 『한국한문학연구』 제8집, 한국한문학회, 1985, 111~129면.
사진실, 「광대 달문-광막한 천지에 부는 바람 같은 사내」, 서대석 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1, 휴머니스트, 2008, 164~183면.
윤지훈, 「조선후기 문인의 『사기』 인식과 평가에 관한 일고 - 「항우본기」에 대한 제가 비평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35호, 동방한문학회, 2008, 253~279면.
이가원, 「광문자전 연구」, 『인문과학』 제7권,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62, 25~54면.
정규식, 「<광문자전>의 서사적 내용과 주제 의식」, 『용봉인문논총』 제52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163~192면.
차충환, 「상하 경향을 아우른 휴머니즘과 자유인의 형상, 달문」, 김진영 편, 『조선 후기 소수자의 삶과 형상』, 보고사, 2007, 128~154면.

www.kci.go.kr

A Study on *Gwangmunjajeon*廣文者傳*

An, Soon-tae

What is the outstanding point of *Gwangmunjajeon*廣文者傳, which is said to have been written by *Yeonam*燕巖 around the age of 18 and made his name known in one day. *Yeonam* wrote the original biography of *Gwangmun* in the early years, and ten years later, he wrote the reminiscence of *Gwangmun*. The main subject of interest in this paper is the original biography of *Gwangmun*.

Whether to view the original biography and reminiscence as the same narrative or as separate narratives has been the main point of research on this work. I think the original biography of *Gwangmun* is a work of complete narrative in itself, and in this article, I focused on the narrative completeness of the original biography and its superiority as a classical work.

The narrative of the original biography is characterized by 'excellent arrangement of narrative segments' and 'close connection between narrative segments.' The narrative of original biography is largely composed of four segments, of which the first, second, and fourth segments are composed of an anecdote before *Gwangmun* became famous, an anecdote about the moment when *Gwangmun* became famous, and an anecdote after becoming famous. As we read this work, it is easy to get into by the interest that comes from each episode, but we unknowingly accept the time variance acquired by the sequential composition. This time variance can be said to have a narrative completeness, and the natural connection between the segments and segments of the narrative through auxiliary characters enhances the completeness of this work. The appearance of auxiliary characters from homeowner to drugstore owner and from drugstore owner to *Unshim*, a gisaeng is not only lively in the work itself, but also contributes to the multifaceted highlighting of the theme of this work, 'faith.' On the other hand, the third segment seems to enumerate bits of information about

www.kci.go.k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9 Research Fund of University of Ulsan.

Guangmun at first glance, but this also features a characteristic overview of *Guangmun*'s humanity, such as *Guangmun*'s ugly appearance and poor speech, and nevertheless being considerate and unconstrained, and has not been revealed as major anecdotes. It can be said that it complements the character of *Guangmun*.

The original biography of *Guangmun*, the reminiscence, and the author's preface of *Banggyeonggakwejeon*放璚閣外傳 should be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how each was written. At the time of the creation of the original biography, *Dalmun*達文(another name of *Guangmun*) had a high reputation as a person of trust in Joseon, and accordingly, *Yeonam* portrayed *Guangmun(Dalmun)* as a person representing faith with narrative integrity in the original biography. The whole narrative of original biography highlights the value of faith. On the other hand, after the evaluation of *Dalmun* changed, the meaning of caution against those struggling for fame is contained in the reminiscence, and the author's preface of *Banggyeonggakwejeon*.

keywords: *Guangmun*廣文, *Dalmun*達文, *Yeonam*, *Park Jiwon*, original biography, reminiscence, the classical work, *Shiji*史記

접수일자: 2020. 9. 30.
심사기간: 2020. 10. 1.~2020. 11. 10.
게재결정: 2020. 11. 10.

www.kci.go.kr